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도철 베드로 916-690-6555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열왕기 상권 19:4-8	제2독서	에페소서 4:30-5:2	복음	요한 6:41-51
--------	------	------------------	------	------------------	----	---------------

미사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

우리는 복음서에서 계속해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성체성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체성사는 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미사는 하느님의 어린양의 혼인 잔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린양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는지요? 이는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탈출기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 밤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일 년 된 흙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도망갈 모든 준비를 갖춘 다음 서둘러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밤에 하느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짐승의 말배와 모든 인간의 말아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거룩히 지켜야 할 빠스카의 밤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든 짐승의 말배와 자식들이 살아남았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들어와 새로운 빠스카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새로운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미사는 바로 이 새로운 빠스카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제물이 되시고 제주가 되시어 하느님께 올리는 제사를 드리십니다. 또한, 미사를 혼인잔치라고 부르는 것은 미사야말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의 배필로써 새로운 계약을 맺는 의식이 바로 미사라는 뜻에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옛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약을 맺음으로써 하느님은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신부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였듯이, 우리는 미사성제를 통해 이 약속을 갱신하기에 미사를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곳이지요. 먹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고, 마실 거리는 생명의 포도주입니다. 이보다 더 생명이 넘치는 잔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 6,50-51)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범을 통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혼인서약은 이것이지요. **“나는 예수님을 배필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에 자유로이 기쁘게 응답하는 것이 혼인서약입니다.

그러므로,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혼인서약을 새롭게 갱신하려는 마음으로 와서 참으로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실 때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 13,34)는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성체를 모셔야 하겠습니다.

일 자	전 레 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8월13일(화)	연중 제19주간 화요일	오후 7시30분	주일헌금	\$ 1,160.00
			교무금	\$ 3,170.00
8월14일(수)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오전 8시	성물방	\$ 38.00
			자선비	\$ 245.00
8월15일(목)	성모 승천 대축일	오후 7시30분	성소후원	\$ 365.00
			미사예물	\$ 1,480.00
8월16일(금)	연중 제19주간 금요일	오전 10시	청년부/장례식	\$ 900.00
8월17일(토)	연중 제19주간 토요일	오후 7시30분	합 계	\$ 7,358.00
8월18일(주일)	연중 제20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9명 성인: 153명
교무금 봉헌자	김형진.이종만(7-12)원승남(7-10)김순애.김경숙.윤수용.조영숙(7-8)김창현.이혜옥(7)김영숙.김은영.김상돈 김규대.안강순.지복원.박용호.조용주(8)김운태(9)			

성모 승천 대축일

교회는 8월 15일을 성모 승천 대축일로 지냅니다. 언제부터 성모 승천을 성대하게 기념하게 됐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승천에 관한 기록은 신약 성경과 초대 교회 문헌 어느 곳에도 명확하게 언급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모 승천을 공적으로 기념한 것은 5세기 초 예루살렘 교회가 8월 15일 성모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축일로 지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교회는 6세기께 이 축일을 ‘성모 안식 축일(Dormitio)’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순교자들과 성인들을 그들의 선종 일에 맞춰 기념하던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모 마리아가 하늘나라에 올림을 받아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성모 안식 축일’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후 성모 승천 대축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3월 25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12월 8일) 등과 함께 교회 전례력에서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기념하는 대축일 중 하나로 지켜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성모 승천이 가톨릭교회의 믿을 교리로 공식 선포된 것은 불과 72년 전의 일입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재위 1939~1958년)가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지상의 생애를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 올림 받으셨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으며 지상 생활을 마치신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으시어, 주님으로부터 천지의 모후로 추대받으셨다 (「교회헌장」 59항)”며 성모 승천 교리를 교회의 정통 교리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모 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면서까지 마리아에게 각별한 영예와 공경을 바치는 이유는 마리아가 구세사에서 수행한 탁월한 역할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명함으로써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성부의 뜻과 성자의 구속 사업과 성령의 모든 활동에 전적으로 따르고 참여함으로써 교회를 위하여 신앙과 사랑의 모범 (「가톨릭교회 교리서」 967항)”이 된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그랬듯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순명하고, 평생 하느님의 뜻만을 따라 살며 구원 사업에 협력한 점을 인정해 교회는 성모에게 특별한 영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우리의 거룩한 어머니로 공경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뜻을 찾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이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권고하시고, 또 사사로운 이익이나 욕망에서 벗어나 모든 인류가 가진 바를 나누고 살아가는 참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것’, ‘나를 위해 남겨 둔 몫’을 찾기보다 ‘너의 몫’을 챙겨주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영상 교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미사지향 (미사신청: 전례부장 916-990-6531/사무장 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서국은 바오로	생	조유원 요셉 영육건강	조윤희 밀지다
연	더글라스 맥 윌리엄 영혼	김순녀 도미질라	생	(생일) 최일해 다니엘 영육건강	최정신 데레사
연	원건호 스테파노 영혼	원미애, 기보애, 기족	생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과 봉사자 분들의 영육건강	제15차 꾸르실료 참가자
연	고용자 데레사 영혼	정영규 안토니오 가족			
연	이영순 소피아 영혼	표정호 다니엘 가족	생	감사미사	유가브리엘라
연	박수경 루시아 영혼	박종윤, 요셉, 율리아			
연	박수경 루시아 영혼	곽유경 데레사			
연	박수경 루시아 영혼	장호길 요한비안네	연	이상순 카타리나 영혼	박병수 벤자민
연	최승록 아곱 영혼	원승남 요셉	연	엄규홍 안드레아	이나숙 데레사
연	박순규 유스티나 영혼	원승남 요셉			
연	이경선 영혼	이세실리아			

◎공동체 소식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기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1.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일시: 15일(목) 오후7시30분. 성당
 주일과 같은 의무대축일입니다.
 저녁미사에 모두 참석해 주시고, 봉헌 때는 주일과 같이 대축일 봉헌예절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인 세례식

일시: 15일(목)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중
 대상: 송준호 라파엘, 서성정 라파엘라, 김석태 모니카, 이제이미 마더 데레사 (이상 4명)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새 신자들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인도를 바랍니다.

3. 본당 꾸리아

일시: 18일(주일) 교중미사후 엘리사벳방
 각 뽀레시디움 4간부는 모두 참석 바랍니다.

4. 2024 Missionary Cooperative Appeal 안내

일시: 17일(토)~18일(일) 모든 미사
 (교구 2차헌금 있습니다)
 목적: 해외 선교 후원
 안내자: Glenn Jaron 신부님
 (필리핀 외방선교회 소속)

5. 구역미사 및 단체 활동

1-1구역: 16일(금) 오후 7시, 김수용 스테파노/아녜스(떡)
 2구역: 18일(주일) 교중미사후, 친교실
 6구역: 18일(주일) 교중미사후, 데레사방
 8구역: 18일(주일) 교중미사후, 요한방
 9구역: 18일(주일) 교중미사후, 루카방
 10구역: 18일(주일) 교중미사후, 마태오방
 사회복지부: 18일(주일) 노라플레이스 음식봉사

6. 감사합니다.

제28차 북가주성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성령기도회와 사목회, 여성단체 등 모든 봉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 사랑의 급식 (2구역)

일시: 18일(주일) 모든 미사후 친교실
 메뉴: 비빔밥 가격: \$5/1인
 도네이션 하실 분은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

8. 감사합니다(도네이션 등)

청년부: \$500 (Recycle 수익금)
 박종윤 요셉.박성진 율리아: \$500 (리노공소)
 최응철 레오.엄유경 유스티나: \$200 (장례미사)
 \$200 (연령회)

9. 협조 및 공지사항

(1) 교무금/도네이션 봉헌

주일헌금 봉헌함에 넣지 마시고 가급적 사무실에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 미사봉헌 신청

최소 1주일전 혹은 미사시작 30분전에 신청 바랍니다. 후보 공지를 원하실 경우는 늦어도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신청바랍니다.

(3) 교무금/도네이션 등 후보공지 기준

매주 일요일에 재정부에서 집계하고, 그 다음 주일 후보에 공지합니다.

<< 주일학교 >>

주일학교 가을학기 개강 미사

일시: 18일(주일) 오전9시

화답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전례봉사	연중 제19주일 (8/11)	연중 제20주일 (8/18)	연중 제21주일 (8/25)	연중 제22주일 (9/1)
미사해설	김선식 / 이해련	오민정 / 김선영	김아영 / 조용주	박문교 / 김진영
복사	황건영 / 임가빈 김규철 / 박지은	지마리 / 박예진 최준우 / 김영준	박예린 / 박예진 권오승 / 장현철	곽아인 / 정준영 장현철 / 송돈희
헌금위원	셋별Pr.	천상의모후Pr.	셋별Pr.	천상의모후Pr.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사무장 박프란치스코 S (909-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

1.2.3 Auto Body 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

Angel Garden Care Home

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

- ▶ 케어홈 운영 상담 가능
- ▶ 구인광고

- 40세이상 여성으로 가사경험이 풍부하신 분
플타임. 파트타임 가능/ 시간당 \$20 / IRA가능(희망자)



#1 KOREAN CHICKEN
모임/생일 Catering 주문 환영

뽕치킨

916-840-5535
조현화(헬레나)916-728-8585
KP market, #411

서은미 부동산

ONE
REALTY ONE GROUP
COMPLETE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

CATHOLIC FUNERAL CEMETERY SERVICES (새크라멘토교구 직영)

2110 Broadway
Sacramento, CA95818
한국세션 담당 Beda
916-840-2156
279-799-8572

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916-342-7072

CHEZ JULIA HANDMADE SOAP & CANDLES

쉐 줄리아 공방
수제 비누, 샴푸바, 캔들, 디퓨저,
One day Class, Thank you gifts
[/chezjulia_banheemom](https://www.instagram.com/chezjulia_banheemom)
박지은 (아델라)
626-617-2215



스마일마켓 쿠폰판매

※ 판매금액의 15% , 본당 재정 수입
여성부장 최재진 모니카
916-798-6577
성물방 이나숙 데레사
916-201-5630

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

고추장. 된장. 도토리 국수. 참기름. 고춧가루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916-591-0179)